韓國 農村 生活指數 硏究

——새마을運動의 임팩트——

金 海 東*

〈目 次〉

Ⅰ. 序
1. 머릿말
2. 調査對象者의 배경
Ⅱ. 農村의 生活 指數
1. 住居狀態
2. 敎 育
3. 所 得
4. 食 生 活
5. 健 康
6. 職業만족
7. 家族화목
8. 對人關係
9. 安 全
10. 여가(Leisure)
Ⅲ. 總評(暫定的)

《要 約》

이 글은 個人的인 어프로치를 通한 韓國的 Q.L I.의 試圖이다. 筆者는 여기서 I.D.R.C.가 支援하는 우리나라의 새마을 事業의 評價 및 實驗調査의 일환으로서 韓國農民들 이 새마을 事業이 始作된 1970年度와 1975年間에 生活이 어떻게 向上되었는지를 調査分析한 것이다. 筆者는 韓國農村의 立場에서 生活의 分野를 10個로 分割하여 各各을 測定하는 尺度를 構成하고 이것을 通하여 韓國農村의 生活을 測定하려고 試圖한 것이다. 이것은 그 中間報告의 一部이다. 尺度의 構上成 및 가지 理論上의 問題點이 있는 것은 本文에서 指摘한 바와 같이 本報告에서 補完토록 하고 여기서는 다만 그 方法論上의 節次와 그 主要結果만을 提示한다.

Ⅰ. 序

1. 머릿 말

어떠한 事業을 評價하는 가장 重要한 局面의 하나가 그 事業의 目標를 얼마나 達成하였는가를 測定하여보는 것이다. 이 part는 主로 이러한 立場에서 새마을 事業을 評價하자는 것이다. 即 새마을 運動이 잘 살기 爲한 運動이며 따라서 그것이 韓國의 農漁民들의 生活의 各分野에서 과연 얼마나 잘 살게 하였는가 하는 것을 測定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새마을運動이 始作된 1970年과 始作한 후 五年이 경과된 1975年의 生活狀態를 測定·比較하는 것

* 筆者는 現在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敎授이다

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方法論上 다음과 같은 問題가 解決되지 않은 채 包含되어 있다. 그것은 主로 그 기간 동안의 生活上의 變化에는 새마을 事業 이외의 effects도 包含되어 있다는 事實이다 即 history, maturation effects에 關한 問題이다. 다른 여러 經濟分野의 비약적 發展이라든가 幹線도로 등 社會間接시설의 建設, masscom, 국제수지의 改善等이 農漁村의 生活向上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事實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諸要因들을 그대로 놓고 우선 5年間의 生活各分野의 變化를 그대로 測定하였으며 이러한「새마을」以外의 effects에 關하여서는 2次三度 硏究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가장 重要한 것은 새마을 運動의 目標가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서 住民들이 잘 살게 하는데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農民들의 生活이 生活의 各分野에서 얼마나 달라졌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이 評價의 一次的인 作業이라고 본다. 물론 이와 같은 잘 산다는 것의 內容이나 그 程度等은 그 나라의 歷史的, 文化的 經濟的 諸狀況에 따라서 다를 뿐만 아니라 各 나라마다 相當한 差異가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한 가지 確實한 것은 다음과 같은 事實이다. 即 人間이 집을 짓고, 옷을 해입고, 家族을 이루고, 集團을 이루고, 秩序를 樹立하고, 能力에 따라 分業을 하면서 生存해 나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生活의 向上 또는 生活條件의 向上이란 그러한 狀態가 效果的으로 向上되어 가는 것이라는 點이다. 물론 이 말에는 여러가지 變數들이 介入되어 있으며 社會에 따라, 國家에 따라, 또는 時代에 따라서 그 强調하는 點이나 內容에 多少의 差異는 있을 지 모르나 基本的으로는「잘 산다」는 말에는 그러한 狀態의 向上이라는 事實을 지적하는 뜻이 포함되는 것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여기서 向上이란 그러한 狀態를 測定하는 어떠한 尺度(scale)上의 score의 增加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선 여기서는 韓國的 狀況下에서, 韓國民들이 生의 目標로 생각하고 있는「잘 산다」는 것의 內容이 무엇 인지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韓國말에「잘 산다」는 事實을 修飾하는 用語는 大體로 經濟的인 뜻이 强한 것 같다.「豐足하게 산다」,「남부럽지 않게 산다」,「떵떵 거리고 산다」,「갖출것 다 갖추고 산다」,「걱정없이 산다」等이 그것이다. 勿論「尊敬받는 生活」,「自由로운 生活」,「平和로운 生活」,「화목한 生活」等의 非經濟的인 말도 있으나 經濟的으로 豐足한 狀態를 뜻하는 말을 使用하는 頻度가 월등히 많은 것은 事實이다.

그리고 韓國사람들의 人事말은 How do you do?가 아니라 Are you well?이다. 혹시 무슨 걱정이나 事故는 없는지 그리고 健康이 어떠한가를 묻는 人事이며, 多分히 非經濟的인 人事이다. 即 心身의 平安을 묻는 人事인 것이다. 따라서 萬一 어느 程度 經濟的 欲求가 充足되면 韓國사람들이 願하는「잘사는 狀態」는 보다 더 非經濟的인 要因의 達成이 아닌가 생각된다

經濟發展을 强調하는 나머지 第二經濟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 內容은 아마 非經濟的인 要

素라고 생각된다. 即 精神的, 心理的 側面과 多分히 社會開發 또는 社會福祉的인 要素도 加味된 것이나. 그런데 이러한 것들의 重要性을 指摘하는 것은 좋으나 이것이 經濟發展에 必要한 것이나고 생각되기 때문에 强調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科學技術의 發展도 經濟發展을 爲한 手段만으로서만 그 重要性을 認識하고 있으며 나아가서 그 機關에 따라 多少의 差異는 있으나 國家行政의 모든 面이 經濟發展을 爲主로 하고 있다.

그러한 努力으로 그리고 結果的으로 各種 經濟指數上의 向上을 가져온 것만은 事實이라는 點이다. 그러나 이와 아울러서, 即 돌이킬 수 없는 狀態에 到達하기 前에 다음과 같은 事實도 아울러 銘心하여야 할 것이다.

勿論, 基本的 欲求마저 많은 사람들이 充分히 充足되지 못하고 있는 立場에서 좀 어색한 말이 될지도 모르나 結局은「무엇을 爲한 經濟發展이냐?」하는 問題도 充分히 考慮되어야 한다고 보며 그렇게 되면 經濟開發을 늦추라는 것이 아니라 方法이나 分野 또는 强調하는 點이 相異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即 最近 國民所得이 5,000$에 達하는 美國을 비롯한 先進國의 科學者들 間에 所得의 增加와 生活의 向上이 반드시 比例하지는 않는다고하는 點을 指摘하고 그 具體的인 例를 많이 들고 있다. 人間生活의 向上에 貢獻하여야 할 科學技術이 오히려 人間의 生命에 危殆을 주고 있다는 事實等이 그것이다.

그리하여 심지어 第二經濟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다. 그 內容은 아마 非經濟的인 要素들이라고 生覺된다. 即 精神的, 倫理的, 心理的 側面의 重要性과 그 改革을 强調하는 것이었는데, 그 理由는 그러한 要因들이 經濟開發에 重要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며, 이러한 要素들 自體의 重要性의 認識때문은 아닌 것같다. 勿論 經濟的인 要素들의 重要性을 輕視할 수는 없으나 人間의 生活에는 그 外에도 人間이 크게 價値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다. 例를 들면 健康이라든가 夫婦와 親子間의 關係를 中心으로 한 家族 間의 和睦, 他人으로부터 좋게 認定받는 것, 美的인 것의 감상 等이 그것이다. 勿論 이러한 것의 大部分이 돈에 依하여 많은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돈과 바꿀 수 있는 것도 있으나 根本的으로 돈과 關係가 없는것도 많이 있다.

이러한 事項들을 念頭에 두고「잘산다」는 것의 內容을 두가지 角度에서 檢討하여 보기로 한다.

잘산다는 말은 英語의 "well-being"이란 말과 흡사하다. 이것을 크게 두가지 角度에서 考察할 수 있다. 하나는 生理的, 心理的 安寧이고 또 하나는 그러한 狀態를 造成하는 客觀的 條件이라고 할 수 있다. 勿論 이 兩者는 相互作用하는 性質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即 客觀的 條件이 人間의 價値觀의 形成이라든가 其他 態度形成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事實이 前述한 生理的, 心理的 安寧에 作用하는 것이다.

1) 生理的, 心理的 安寧(physiological & psychological well-being):

이것은 主로 生理的, 心理的 欲求의 充足狀態를 말한다. 이中 生理的 安寧은 食欲, 갈증의 解消나든가 疾病이나 其他 生命의 危脅으로부터의 解放 또는 適當한 休息과 運動等 肉體的으로 快適한 溫度나 光度, 濕度 等의 維持, 自由로운 肉體 運動 등 主로 生理的, 肉體的 快適狀態를 말한다.

心理的 安寧(psychological well-being)이란 前述한 生理的 安寧狀態에 對한 主觀的인 滿足感 또는 스스로의 評價를 말한다. 이것은 또한 充足感과 그러한 狀態의 維持 또는 持續되리라는 保障感을 包含한다. 여기에는 또한 一般的으로 社會的 欲求라고 알려진 것들이 있다. 例를 들면 他人으로부터 사랑이나 尊敬을 받고자 하는 欲求라든가 무엇을 探究하고 理解하고자 하는 欲求라든가 有名하여 지고 싶다든가 높은 地位에 있고자 한다든가 하는 欲求 等이다. 이와 같은 여러 欲求의 充足 또는 滿足感과 그러한 狀態가 維持되리라는 確信 또는 保障感이 心理的 安寧이라고 할 수 있다.

2) 安寧을 위한 諸條件(生活條件)(Conditions for well-being)

人間은 집을 짓고 家族을 이루고 集團을 形成하고 옷을 기워입고 秩序를 樹立하고 能力에 따라서 分業을 하면서 前述한 生理的, 心理的 欲求를 充足하려고 努力한다. 이것이 곧 生活인 것이며 生活의 向上 또는 生活의 質의 向上이란 얼마나 그러한 欲求가 充足되었으며 또한 얼마나 效果的으로 充足시킬 수 있는가를 말하는 尺度上의 score의 上昇을 말한다.

여기서 安寧을 爲한 諸條件 또는 生活條件이란 收入, 住宅, 衛生, 交通, 職業, 情報, 藝術, 道德 및 秩序, 教育, 그리고 其他 여러가지 制度 等이다.

前述한 社會指標(social indicators)란 經濟指標(economic indicators)에 對應하는 用語이나 共히 넓은 意味에서는 結局 이러한 生活條件을(경우에 따라서는 前述한 生理的 肉體的 欲求의 充足程度까지도) 測定하는 尺度인 것이다. 이러한 生活條件이란 前述한 生理的 心理的 安寧을 爲한 條件이다. 그런데 여기서 心理的 安寧이란 前述한 바와 같이 生理的 安寧狀態에 對한 主觀的인 滿足感인 것이며 또한 여기에는 社會的 欲求의 充足에 對한 滿足感도 包含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말은 곧 그것이 主觀的인 同時에 相對的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即 이것은 사람들의 欲求水準(level of needs or aspiration)과 種類에 關聯된다. 即 欲求의 水準이 높은 사람은 같은 生活條件下에서도 그것이 낮은 사람보다도 滿足한 狀態에 到達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當然한 일이다. 一般的으로 教育程度가 높기나 經濟的 社會的 地位가 높은 사람이, 그리고 農村 사람들 보다는 都市人들이 이러한 欲求의 水準이 높다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따라서 不滿이 더욱 큰 것이 一般的인 傾向이다. 故로 教育程度와 收入의 程度가 높을수록 보다 더 幸福한 生活 또는 滿足한 生活을 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으며 그것은 다만 生活條件의 客觀的인 向上일 뿐이다. 政府가 이와 같은 生活條件의 向上을 爲하여 努力하는 것은 그것이 보다 더 國民들의 生活에 對한 滿足感을 增大시킬 것이라는 생각이 低邊에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새마을 事業이 始作된 1970年度와 1975年度間에 韓國 農民들의 生活의 向上의 程度를 살펴 보는 일이다. 그리하여 便宜上 前述한 生活의 內容을 다음과 같은 10個의 分野로 나누어서 그 差異를 살펴 보기로 한다. 그것들은 住居, 敎育, 收入, 영양(nutrition), 健康, 職業滿足, 家族의 和睦, social relations, social security, leisure의 10個 生活分野이다. 이러한 分類가 滿足스러운 것은 못되나 어떠한 家庭의 生活의 狀態를 엿볼 수는 있다고 본다. 그리하여 各各의 分野에서 各各 最上의 狀態를 100點, 最惡의 狀態를 0點으로 하는 尺度에 依하여 1970年度의 狀態와 1975年度의 狀態를 比較하고자 試圖하였다.

여기서 方法論的으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 點이 問題가 된다. 하나는 前述한 10個分野들의 各各의 比重을 어떻게 하느냐하는 問題이다. 例를 들면 住宅分野에서의 75點과 家族 關係(family relation)에서의 40點을 全體生活 狀態에서 같은 比重으로 볼 것인가 하는 問題이다. 이 問題를 解決하기 爲하여 大學院生 40名의 判斷을 求하였든바 大體로 各分野에 같은 比重을 주어도 좋겠다는 結論을 얻었다. 그러나 人間의 欲求와 欲求水準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되는 經濟水準(economic level)과 敎育水準(education level)이 높은 大學院學生들의 判斷이라는 點에 問題가 있다는 點만은 認定한다.

또 한가지는 各農家의 이러한 10個分野의 水準을 測定한 尺度가 比較的 單純하였다는 點이다. 그러나 各分野 하나 하나를 測定하는 尺度의 構成만 하더라도 本 硏究 規模를 훨씬 능가하는 作業이며 이것은 不得已한 일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重要한 點은 새마을 事業이 始作된 1970年代의 狀態를 決定할 수 있는 資料에 關한 것이다. 大體로 調査對象者의 記憶을 爲主로 하였으나 그 當時의 이와 關係된 調査 報告書라든가 各種記錄等에 依하여 그들의 記憶을 確認하고 補完하도록 努力하였다.

2. 調査 對象者의 배경

우리나라의 農漁村地域居住家口의 比率은 大體로 約 245만口로서 全體家口의 39.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家口가 全國의 約 34,665個의 部落에 居住하고 있으며 本調査는 이러한 部落中에 360個의 마을을 抽出하여 調査하였으며 그 節次는 다음과 같다. 우선 全國 10個道 中에서 4個道(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를 선정하였다. 이러한 四個道가 우리 나라의 全體 農漁村을 比較的 잘 代表한다고 생각된다는 本 硏究委員들과 자문위원들 間의 判斷에 依한 것이다. 그리하여 各道에서 인구, 면적, 所得수준, 經濟構造 등 몇가지 기준에 따라서 3個郡씩을 抽出하고 各郡에서 다시 上述한 기준에 따라서 5個面씩을 선정하였다. 그리하여 각 면에서는 등현 간격(equal interval)에 따라서 6個 마을을 선정하였으며 따라서 선정된 調査對象 마을은 360개 이다. 그리하여 最終的으로 각 마을에서 다시 등현간격으로 10개 家口씩을 선정하였다.

이들 마을은 大體로 다음 表와 같이 50戶 前後의 가구들이 살고 있다.

〈表 1〉 마을의 家口數

25가구 이하	0.6%	126~150	3.6%
26~50	22.3%	151~175	2.2%
51~75	33.6%	176~200	2.2%
76~100	16.9%	200가구 가구 이상	1.7%
101~125	12.2%		

이들 마을은 一般農村마을이 314, 漁村마을이 16, 農村과 漁村이 혼합된 마을이 6, 농어촌이 아닌 一般小規模都市의 性格을 띤 마을이 14個이다.

다음 몇개의 表는 이러한 마을의 狀態를 말하는 것이다.

〈表 2〉 가까운 市나 邑까지의 거리

(1) 2km 이내	344	(6) 17~20km	202
(2) 3~4km	350	(7) 21~24km	204
(3) 5~8km	605	(8) 25~28km	140
(4) 9~12km	550	(9) 28km 이상	417
(5) 13~16km	555	(10) 무응답	168

〈表 3〉 면事務所와의 거리

(1) 2km 이내	1,388名	(6) 11~12km	107
(2) 3~4km	910	(7) 13~14km	19
(3) 5~6km	534	(8) 15~16km	31
(4) 7~8km	243	(9) 16km 이상	107
(5) 9~10km	59	(10) 무응답	130

〈表 4〉 파출소와의 거리

(1) 2km 이내	1,404名	(6) 11~12km	58
(2) 3~4km	752	(7) 13~14km	21
(3) 5~6km	518	(8) 15~16km	38
(4) 7~8km	259	(9) 16km 이상	40
(5) 9~10km	138	(10) 무응답	107

Ⅲ. 韓國農村의 生活指數

1. 住居狀態(Housing Status)

都市民과 農漁民의 自己가 사는 고장에 對한 愛着心의 差異는 아마 移動度(mobility)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思慮된다. 또한 都市에서 公共統制(public control)를 어렵게

하는 익명성(anonimity)도 實은 移動度와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있다. 韓國의 農村人口는 이러한 移動度라는 面에서 보면 極히 낮다. 다음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85%의 家口가 그 마을에 10年 以上 거주하고 있으며 약 60% 이상의 家口는 自己의 先親때부터 그 마을에 살고 있다.

〈表 1〉 이 마을에서 거주기간

(1) 5年 미만	205名	(5) 선친 때부터	694名
(2) 10年 미만	332〃	(6) 조부모 때부터	437〃
(3) 20年 미만	406〃	(7) 조상 때때로	1,065〃
(4) 그 이상	345〃	(8) 무응답	51〃

따라서 特히 韓國의 농촌사람들에게 住宅은 그 住宅의 時價라든가 周邊의 生活上의 便宜以上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住宅은 그들의 조상 代代의 魂이 담긴 것이며 따라서 지켜야 할 정신적 기지인 것이다.

本 調査에서 住居狀態의 水準을 住居의 所有關係, 지붕의 材料, 음료수의 세가지를 가지고 決定하기로 하였다. 물론 住居狀態의 水準을 決定함에 있어서 이러한 세가지 變數만으로 決定한다는 것은 몹시 粗雜한 感이 없지 않으나, 첫째, 다른 事實들은 量化하기에 不適合하고, 둘째, 이러한 세가지 變數는 住宅에 關한 여러가지 狀態를 가리키는 indicator로서 大體로 그리 無理가 없는 것으로 判斷되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住宅의 所有關係에 最高 50點, 지붕의 材料의 種類에 25點 음료수에 25點을 各各 부여하였다. 그리하여 다시 이것을 다음과 같이 weight를 주었다(이것은 어디까지나 比較를 爲한 것임을 지적하여 둔다.)

〈表 2〉 집의 所有關係 (50點)

(1) 建物·垈地 共히 自己所有	50點
(2) 建物만 自己所有 垈地는 他人所有	25點
(3) 垈地만 自己所有 建物은 他人所有	25點
(4) 建物·垈地 共히 他人所有	0點

〈表 3〉 지붕재료의 種類 (25點)

(1) 슬라브 지붕	25 點	(4) 양 철 〃	6.25點
(2) 기 와 지붕	18.75〃	(5) 초 가 〃	0 〃
(3) 스레트 〃	12.5 〃		

〈表 4〉 음 료 수

(1) 개인 上水道	25點	(4) 공동 펌프	10點
(2) 共同 上水道	20〃	(5) 개인 우물	5〃
(3) 개인 펌프	15〃	(6) 공동 우물	0〃

아래 표 〈5〉〈6〉〈7〉은 주택에 관한 指數이다.

〈표 5〉 전 국

조사대상자수	1970		1975		변화도
	총점	평균	총점	평균	
3,535	177,990	50.35	225,768	63.87	13.52

〈표 6〉 道 別

道名	조사대상자수	1970		1975		변화도
		총점	평균	총점	평균	
강원도	871	41,886	48.1	52,569	60.4	12.3
충청남도	870	44,246	50.9	55,791	64.1	13.2
전라북도	897	43,603	48.7	54,143	60.4	11.7
경상남도	897	48,255	53.7	63,265	70.5	16.8

〈표 7〉 郡 別

郡名		조사대상자수	1970		1975		변화도
			총점	평균	총점	평균	
강원도	홍천군	294	13,940	47.4	17,426	59.3	11.9
	평창군	289	14,250	49.3	17,336	60.0	10.7
	명주군	288	13,696	47.6	17,806	61.8	14.2
충남	공주군	290	12,810	44.2	18,298	63.1	18.9
	보령군	296	15,893	53.7	18,758	63.4	9.7
	천원군	284	15,544	54.7	18,736	66.0	11.3
전북	고창군	300	14,944	50.0	18,219	60.9	10.9
	진안군	297	13,419	45.2	16,556	55.7	10.5
	익산군	300	15,240	50.8	19,368	64.6	14.2
경남	밀양군	300	15,741	52.5	19,599	65.3	13.2
	하동군	300	16,133	53.8	20,784	69.3	15.5
	합양군	297	16,381	55.0	22,883	76.8	21.8

또한 주택사정에 대한 기타의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표 8〉 지붕의 종류

	1970		1975	
1. 초가지붕	2,443	69.1	694	19.6
2. 기와지붕	539	15.2	966	27.3
3. 슬레트지붕	233	6.6	1,298	36.7
4. 양철지붕	165	4.7	432	12.2
5. 스라브	17	0.5	24	0.7
6. 기타	58	1.6	44	1.2
7. 무응답	80	2.3	77	2.2
계	3,535	100%	3,535	100%

〈표 9〉 주택 사정에 대한 만족도

	1970		1975	
1. 매 우 만 족	33	0.9	74	2.1
2. 만 족	570	16.1	953	27.0
3. 보 통	2,037	57.6	1,819	51.5
4. 불 만	749	21.2	595	16.8
5. 매 우 불 만	98	2.8	57	1.6
6. 무 응 답	48	1.3	37	1.0
계	3,535	100%	3,535	100%

〈표 10〉 주택사정의 불만이유는?

	1970		1975	
1. 미관상 좋지 않다	172	4.9	126	3.6
2. 위생상 좋지 않다	61	1.7	45	1.3
3. 실내조명이 좋지 않다	8	0.2	6	0.2
4. 주택구조가 생활하기에 불편	133	3.8	128	3.6
5. 집이 협소하다	233	6.6	196	5.5
6. 대지가 협소하다	71	2.0	69	2.0
7. 초가지붕(노동력, 경비의 부담과중)	233	6.6	110	3.1
8. 집이 타인 소유	55	1.8	71	2.0
9. 기 타	313	8.9	276	7.8
10. 무 응 답	164	4.6	111	3.1
11. 무 해 당	2,682	75.9	2,821	79.8
계	3,535	100%	3,535	100%

2. 敎 育

韓國 사람들은 그 所得水準에 比하여 그들 子女들의 敎育에 對한 關心이 대단히 크다. 이것은 敎育과 收入, 敎育과 出世가 密接한 關係에 있다고 믿는 程度가 他國民들에 比하여 높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過去에 우리나라의 農家家口의 家計收支가 子女들의 學費 때문에 파괴 되어가고 있다는 말이 널리 나돌았다. 이것은 농민들이 子女들을 都市의 學校에 進學시키기 爲하여 비싼 生活費와 學費를 充當할 길이 없어서 農土나 家畜들을 팔아 充當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당시 都市에 高等敎育의 建物들이 많이 세워졌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經濟水準에 비추어서 너무나 많이 세워지지 않았나 하는 비판의 소리도 높았다. 이러한 批判의 소리는 아직도 남아 있다. 이 당시 이것을 批判하는 말로서 「牛骨塔(cow-bone-tower)」이라는 말이 나돌았다. 이것은 ivory tower에 대한 말로서 가난한 농민들이 판 農牛의 뼈로서 學校의 building이 세워졌다는 式으로 비꼬는 말이다. 그 만큼 子女들의 敎育에 對한 熱意가 대단하다. 그러한 까닭에 子女들을 上級學校에 進學시키기 爲해서는

어느 정도의 經濟的인 희생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大部分의 우리나라 父母들의 態度이다. 父母들의 「못 배운 서러움」을 子息들을 通하여 解消시킨다는 意識도 多分히 포함되어 있다.(註, 우리나라 말의 슬픔을 表現하는 말로서 「못배운 슬픔」, 「집없는 슬픔」等이 있으며 이는 甚한 슬픔을 나타내는 말로 通用된다) 그리하여 大部分의 父母들은 子女들을 學校에 보내서 工夫시키는 것 自體에 樂을 느끼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 6年의 義務教育制가 실시된지는 오래이다. 그러나 이것이 실시된 초창기에는 國民學校 6年의 教育의 모든 面이 무상교육인 것은 아니었으며 兒童數에 比하여 교실이나 교사의 수도 不足한 形便이었다. 오늘날 이러한 문제는 크게 向上되었으나 아직도 實質的으로 完全한 狀態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또한 초창기에는 농가에서 適齡兒童인데도 不拘하고 노-트代金이나 學級費 等의 돈이 없어서 學校에 보내지 않는 父母가 있었는가 하면 농번기에는 갓난아이를 돌보게 하기 위하여 학교에 보내지 않는 父母들도 있었다. 이러한 事實들을 감안하여 教育에 對한 滿足程度를 다음과 같이 測定하기로 하였다.

〈表 1〉 7~18세 사이의 자녀중 학생의 비율

1) 100% 이하	15 點	4) 40% 이하	3.75點
2) 80% 〃	11.25〃	5) 20% 〃	0 〃
3) 60% 〃	7.5 〃		

〈表 2〉 19~23세의 자녀중 학생의 비율

1) 100% 이하	85 點	4) 40% 이하	29.25點
2) 80% 〃	63.75〃	5) 20% 〃	0 〃
3) 60% 〃	42.5 〃		

아래 표 〈3〉〈4〉〈5〉는 교육에 관한 지수이다.

〈표 3〉 전 국

조사대상자수	1970		1975		변화도
	총점	평균	총점	평균	
3,535	51,602	14.6	58,694	16.6	2.0

〈표 4〉 道 別

道名	조사대상자수	1970		1975		변화도
		총점	평균	총점	평균	
강원도	871	9,605	11.0	12,206	14.0	3.0
충청남도	870	14,436	16.6	16,816	19.3	2.7
전라북도	897	12,338	13.8	14,473	16.2	2.4
경상남도	897	15,223	17.0	15,199	16.9	0.1

〈표 5〉 郡 別

郡 名	조사 대상자수	1970 총점	1970 평균	1975 총점	1975 평균	변화도
강원도 홍천군	294	3,096	10.5	4,000	13.6	3.1
평창군	289	3,024	10.5	3,839	13.3	2.8
명주군	288	3,485	12.1	4,368	15.2	3.1
충 남 공주군	290	3,439	11.9	4,463	15.4	3.5
보령군	296	5,903	19.9	5,723	19.3	0.6
천원군	284	5,095	17.9	6,631	23.8	5.9
전 북 고창군	300	4,038	13.5	4,959	16.6	3.1
진안군	297	3,033	10.2	4,518	15.2	5.0
익산군	300	5,268	17.6	4,996	16.7	0.9
경 남 밀양군	300	5,979	19.9	5,863	17.5	0.4
하동군	300	4,783	15.9	4,754	15.8	0.1
합양군	297	4,461	15.0	45.83	15.4	0.4

〈표 6〉 자녀교육의 불만인 이유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970		1975	
1. 통당 거리가 멀거나 위험	205	5.8	189	5.3
2. 상급 학교가 딴 지방에 위치	38	1.1	47	1.3
3. 교육비 부족	294	8.3	335	9.5
4. 학교시설의 불량, 협소	25	0.7	29	0.8
5. 교원의 부족, 저질	33	0.9	29	0.8
6. 자녀의 정적 불량	13	0.4	18	0.5
7. 교사의 학부모의 유대결여	10	0.3	6	0.2
8. 기 타	58	1.6	54	1.8
9. 무 응 답	109	3.1	70	2.0
10. 무 해 당	2,960	83.7	2,967	83.9
11. 학생이 너전	27	0.8	26	0.7
계				

교육에 관한 다른 資料들은 아래 表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7〉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까지의 거리

	1970		1975	
1. 2km 이내	2,846	80.5	2,928	82.0
2. 4km 〃	528	14.9	497	14.1
3. 6km 〃	73	2.1	57	1.6
4. 8km 〃	24	0.7	13	0.4
5. 10km 〃	3	0.1	3	0.1
6. 12km 〃	2	0.1	2	0.1

7. 4km 이내	0	0	0	0
8. 6km 〃	2	0.1	2	0.1
9. 그보다 멀리	0	0	1	0.1
10. 무 응 답	57	1.6	32	0.9
계	3,535		3,535	

〈표 8〉 자녀교육의 만족도

	1 9 7 0		1 9 7 5	
1. 매우 만족	85	2.4	138	3.9
2. 만 족	576	16.3	812	23.0
3. 그저 그렇다	1,857	52.5	1,630	46.1
4. 불만이다	448	12.7	446	12.6
5. 매우 불만	84	2.4	78	2.2
6. 해당 없음	398	11.3	390	11.0
7. 자녀 연령 미달	0	0	0	0
8. 무 응 답	87	2.5	41	1.2
계	3,535		3,535	

3. 所 得

所得은 生活의 核心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큰 比重을 차지하느냐 하는 것은 여기서 再言할 必要가 없을 것으로 본다. 다만 여기서 한가지 注目하여야 할 事實은 이러한 所得에 여기에서 提示한 다른 10個 分野와 같은 weight를 주는 것이 妥當한가 하는 點이다. 特히 새마을 運動의 目標의 하나가 所得增大이며 또한 大部分의 國家施策의 方向도 大體로 經濟發展에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그 例外는 아니다. 또한 上述한 住居, 健康, 職務滿足, 食生活, 教育等 大部分의 生活各分野의 狀態 自體도 所得과 密接한 關係가 있으며 事實上 영향을 받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것을 그러한 各分野와 같은 weight를 준다는 데에는 적지 않은 問題가 있다. 本調査에서 所得에 일단 같은 weight를 준 것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理由에서이다.

첫째는 所得이 生活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現在의 그 사람의 所得水準에 따라서 相異하며 그러한 所得水準과 生活上의 比重을 다음과 같은 세가지 水準에서 考慮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 하나는 그 社會에서의 最低生計費 또는 그 이하의 所得水準, 둘째는 그 社會의 平均生計費水準, 그리고 셋째는 그 이상의 所得水準이다. 여기서 最低生計費 또는 그 以下의 所得水準의 경우는 所得이 生活上에 차지하는 比重은 거의 絶對的이며 아마 90% 以上의 比重을 차지할지도 모른다. 反對로 所得水準이 平均生計費의 水準을 크게 능가하는 경우는 이것이 차지하는 比重은 極히 낮을 것으로 思慮된다. 勿論 이 경우 그러한 高所得의 持續性의 保障이 前提가 될 때의 이야기다. 그리고 平均生計費를 若干 능가하는 경우(그리

고 그 程度의 收入의 持續性이 保障되는 경우)의 比重은 아마 이 兩者의 中間程度가 되리라고 본다. 우리나라의 農家의 경우 收入水準은 아래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家計收支增減(balance) 面에서 새마을 運動이 始作하는 해(1970年度)의 37,780원에서 1971年度의 101,449원으로 그리고 1975年度에는 이것이 226,931원으로 增加하였으며, 이것이 先進國에 比하면 그 水準이 낮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農村 社會의 平均家計 收入水準은 最低生計費水準을 훨씬 넘어선 水準이라고 말할 수 있을것 같다.

둘째, 理由는 비록 이 比重이 여러나라 政府들의 경제爲主, 경제優先의 態度에 비추어 보아 너무나 작게 보일지도 모르나 여기서는 主로 한 社會의 生活水準의 向上의 比較를 目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無理가 없을 것으로 본다.

셋째는 前述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10個分野의 weight가 大學院 學生들의 判斷(judge-

〈표 1〉 농가 가구당 가계 수지 (전국)

(단위 : 원)

	수 입 Receipt			지 출 Disbursement				
	총 계 Total	농업수입 Farming	농업이외의 수 입 Non farming	총 계 Total	농업지출 Farming	겸업지출 Sideeline business	차 입 금 이 자 Interest on debts	조세공과 Tax and charges
1968	225,825	177,083	48,742	197,826	40,147	6,719	2,366	3,032
1969	271,332	214,617	56,715	233,990	47,489	5,969	3,099	4,324
1970	316,874	248,064	68,810	279,094	54,027	7,043	3,437	3,283
1971	427,372	356,567	70,805	326,223	64,658	6,332	2,855	4,137
1972	514,299	427,994	86,305	402,239	74,613	10,292	3,387	4,282
1973	583,472	480,263	103,209	460,328	89,943	12,818	4,071	6,399
1974	817,152	664,411	152,741	598,081	122,509	20,192	5,822	8,720
1975	1,079,420	890,954	188,466	852,489	176,116	30,371	7,515	12,687
1974. 10. Oct.	58,923	46,606	12,317	49,737	13,343	1,437	529	275
11. Nov.	117,091	103,079	14,012	75,744	18,623	1,571	884	4,094
12. Dec.	80,009	64,259	15,750	70,620	13,523	1,425	1,402	2,263
1975. 1. Jan.	57,437	45,013	12,424	56,201	5,815	1,407	704	428
2. Feb.	50,200	37,213	12,987	56,651	6,288	1,514	294	186
3. Mar.	61,790	46,765	15,029	68,310	12,366	2,655	433	426
4. Apr.	60,345	43,934	16,411	61,626	10,835	2,018	365	105
5. May.	61,429	44,582	16,847	65,283	14,169	2,066	247	770
6. June.	72,866	56,614	16,252	70,119	24,965	2,349	715	233
7. July	75,740	62,642	13,098	60,330	13,680	2,428	438	485
8. Aug.	64,037	50,852	13,185	61,334	10,411	2,993	535	214
9. Sept.	84,914	68,562	16,392	73,380	10,576	3,045	293	1,514
10. Oct.	90,871	73,021	17,850	76,012	25,947	2,059	755	684
11. Nov.	145,769	128,020	17,749	98,419	20,551	2,863	965	5,204
12. Dec.	99,624	79,494	20,130	90,644	14,806	2,879	1,771	2,438

		지출 Disbursement								수지증감 Balance
		가계지출 Living							기타지출 Others	
		계 sub-tatal	식료품 Foods	주거 Housing	광열 Fuel and light	피복 Clothers	교육 School fees	가계잡비 Misce-llaneas		
1968		143,104	67,817	6,958	11,963	12,868	9,732	34,066	2,458	27,999
1969		171,371	79,537	7,373	13,896	15,506	11,423	43,636	1,738	37,342
1970		207,766	95,445	8,675	16,445	17,368	14,185	55,648	3,538	37,780
1971		244,463	115,851	10,353	19,520	18,561	18,363	61,815	3,3778	101,149
1972		309,665	149,225	17,651	20,791	22,662	20,382	78,924	8,859	103,201
1973		337,350	159,590	22,414	22,129	25,049	24,111	84,057	9,749	123,144
1974		435,490	210,933	32,548	31,259	30,894	27,838	102,018	5,298	219,071
1975		616,280	291,508	42,847	38,985	42,498	38,443	162,299	9,520	226,931
1974.	0 Oct.	34,202	18,994	2,002	2,447	2,256	1,997	6,506	51	9,186
	1 Nov.	50,119	25,408	2,675	3,165	3,964	3,712	11,195	453	41,347
	2 Dec.	51,671	22,835	3,218	3,567	5,005	3,369	13,677	336	9,389
1975.	1 Jan.	46,543	21,439	2,501	3,936	4,152	935	13,580	1,304	1,236
	2 Feb.	48,213	21,110	2,123	3,615	3,965	2,624	14,776	156	−6,451
	3 Mar.	50,802	20,550	2,863	3,577	2,594	3,643	17,575	1,628	−6,520
	4 Apr.	47,295	21,214	2,332	3,229	2,973	2,703	14,844	1,008	−1,281
	5 May.	47,831	21,955	2,558	3,013	2,954	2,254	15,097	200	−3,854
	6 June.	41,386	22,702	1,774	2,678	2,235	3,670	8,327	471	2,747
	7 July.	42,949	22,759	2,824	2,413	2,621	2,831	9,501	350	15,410
	8 Aug.	45,990	23,502	4,392	2,543	2,568	2,337	10,648	1,191	2,703
	9 Sept.	57,221	24,485	4,428	2,862	4,905	5,693	14,848	731	11,534
	10 Oct.	46,347	25,553	2,915	3,109	2,585	2,743	9,442	220	14,859
	11 Nov.	68,039	35,965	4,123	3,635	4,328	4,032	15,656	797	47,350
	12 Dec.	67,286	30,274	3,636	4,075	6,618	4,978	17,705	1,464	8,980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한국통계월보. 1976. 8. p. 63.

ment)에 依한 것이며 따라서 income도 다른 것과 같은 程度로 重要視 하였는지도 모른다. 即 이들은 比較的 지금까지의 生活에서 크게 經濟的으로 걱정을 하지 않은 集團이며 또한 家族을 부양하는 責任을 져 본 경험이 없는 學生들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는 點이다.

그러나 여기서 注意할 것은 이러한 所得은 다른, 여기서 提示한 生活分野에도 反映된다는 事實이다.

前述한 住居狀態, 教育, 여가, 그리고 職業滿足 等에도 所得이 反映되어서 나온 score라는 點이 그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다른 生活分野와 같은 weight를 준 것이 크게 無理가 아니라고 본다.

그리하여 本調査에서는 우리나라 農家의 最低 生計費를 大體로 年間 100萬원으로 보고 150萬원 程度면 普通程度의 生活水準이라 보아 다음과 같이 算出 하였다.

〈표 2〉 收 入 年

(1) 25萬원 以下	0點	(5) 150萬원 以下	50點
(2) 50 〃	10〃	(6) 200 〃	70〃
(3) 75 〃	20〃	(7) 200萬원 以上	100〃
(4) 100 〃	30〃		

소득에 관한 지수

〈표 4〉 전 국

조사대상자수	1970		1975		변화도
	총점	평균	총점	평균	
3,535	42,310	12.0	82,350	23.3	11.3

〈표 4〉 道 別

道名	조사대상자수	1970		1970		변화도
		총점	평균	총점	평균	
강원도	871	8,550	9.8	15,380	17.7	7.9
충청남도	870	12,260	14.1	21,990	25.3	11.2
전라북도	897	11,120	12.4	24,540	27.4	15
경상남도	897	10,380	11.6	20,440	22.8	11.2

〈표 5〉 郡 別

郡名	조사대상자수	1970		1975		변화도
		총점	평균	총점	평균	
강원도 홍[illegible]군	294	3,300	11.2	5,700	19.4	8.2
평[illegible]군	288	3,170	11.0	5,760	19.9	8.9
명[illegible]군	288	2,080	7.2	3,920	13.6	5.4
충남 공[illegible]군	290	3,070	10.6	7,040	23.3	13.7
보[illegible]군	296	4,760	96.1	8,170	27.6	11.5
천[illegible]군	284	4,430	15.6	6,780	23.9	8.3
전북 고[illegible]군	300	3,150	10.5	6,840	22.9	12.4
진[illegible]군	297	2,860	9.6	6,700	22.6	13
익[illegible]군	300	5,110	17.6	11,000	36.7	19.1
경남 밀[illegible]군	300	3,030	10.1	6,470	21.6	11.5
하[illegible]군	300	3,590	12.0	7,000	23.3	11.3
함[illegible]군	297	3,760	12.6	6,970	23.4	10.8

所得과 관련된 다른 資料들은 아래 表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6〉 부채의 소스

	1970		1975	
1. 비	을금고로부터	17	0.5	88	2.3
2. 농	협	272	7.4	626	16.6
3. 농	행	19	0.5	19	0.5
4. 친	구	372	10.2	547	14.5
5. 친	척	219	6.0	287	7.6
6. 기	타	158	4.3	233	6.2
7. 해	당없음(부채가없다)	2,107	57.6	1,743	46.2
8. 무	응 답	497	13.6	230	6.1
	계	3,661	100%	3,773	100%

〈표 7〉 부채의 크기

	1970		1975	
1. 읍	다	2,177	61.1	1,720	48.7
2. 5	만 이 하	300	8.5	383	10.8
3. 1	〃	270	7.6	400	11.3
4. 2	〃	147	4.2	346	9.8
5. 3	〃	52	1.5	143	4.0
6. 4	〃	23	0.7	67	1.9
7. 5	〃	31	0.9	73	2.1
8. 10	〃	38	1.1	83	2.3
9. 그	보 다 많 다	10	0.3	24	1.0
10. 무	응 답	487	13.8	286	8.1
	계	3,535	100%	3,535	100%

〈표 8〉 부채의 동기

	1970		1975	
1. 농	사 비 용	381	9.5	608	17.2
2. 병	치 료	134	3.3	201	5.7
3. 집	구 입 수 리	52	1.3	201	5.7
4. 가	축 구 입	49	1.2	169	4.8
5. 겨	불 입 비 용	15	0.4	34	1.0
6. 혼	자 금	238	5.9	448	12.7
7. 상	환 비	375	9.3	501	14.2
8. 농	지 구 입	50	1.2	134	3.8
9. 기	타 외 사 업 비 용	92	2.3	143	4.0
10. 기	타	47	1.2	72	2.0
11. 해	당없음(부채없다)	1,809	51.2	1,477	4.8
12. 무	응 답	780	22.1	463	13.1
	계	4,022	100%	4,451	100%

〈표 9〉 저축한 곳

	1970		1975	
1. 마을금고	16	0.5	227	6.4
2. 은행	29	0.8	73	2.1
3. 농협	132	3.7	401	11.3
4. 우체국	28	0.8	100	2.8
5. 계	84	2.4	195	5.5
6. 친구	93	2.6	174	4.9
7. 친척	56	1.6	104	2.8
8. 기타	34	1.0	55	1.6
9. 해당없음(없는경우)	2,582	73.0	2,194	62.1
10. 무응답	554	15.7	301	8.5

〈한사람이 하나이상 check했음〉

〈표 10〉 저축의 크기

	1970		1975	
1. 없다	2,643	74.8	2,177	61.6
2. 5만이하	126	3.6	295	8.3
3. 10 〃	56	1.6	187	5.3
4. 20 〃	69	2.0	162	4.6
5. 30 〃	27	0.8	100	2.8
6. 40 〃	11	0.3	43	1.2
7. 50 〃	30	0.8	70	2.0
8. 100 〃	25	0.7	89	2.5
9. 그보다많다	11	0.3	39	1.1
10. 무응답	537	15.2	373	10.6
계	3,535		3,535	

〈표 11〉 소득 및 경제생활에 대한 만족도

	1970		1975	
1. 매우만족	11	0.3	32	0.9
2. 만족	281	7.9	560	15.8
3. 보통	2,009	56.8	2,059	58.2
4. 불만	1,073	30.4	782	22.1
5. 매우불만	126	3.6	81	2.3
6. 무응답	35	1.0	21	0.6
계	3,535		3,535	

〈표 12〉 생산물 판매 경로

	1970		1975	
1. 정부·농협 등 관공서	938	26.5	1,592	45.0
2. 마을단위의 공동판매	72	2.0	124	3.5
3. 가까운 시장에서 개인 판매	1,572	44.5	1,000	28.3
4. 도시에 개인적으로 판매	197	5.6	154	4.4
5. 기 타	116	3.3	93	2.6
6. 해당 없음	382	10.8	378	10.7
7. 무 응 답	258	7.3	194	5.5
계	3,535		3,535	

〈표 13〉 생산물 판매와 대금회수에 대한 만족도

	1970		1975	
1. 매우 만족	32	0.9	48	1.4
2. 만 족	495	14.0	702	19.9
3. 보 통	2,361	66.8	2,033	57.5
4. 불 만	271	7.7	369	10.4
5. 매우 불만	34	1.0	47	1.3
6. 무 응 답	341	9.6	336	9.5
계	3,535		3,535	

〈표 14〉 전항과 불만인 경우 건의사항

	1970		1975	
1. 정부 수매시기를 앞당겨야 한다.			7	0.2
2. 수매 곡물의 등급제도의 개선			25	0.7
3. 수매 검사원의 친절			2	0.2
4. 중간 상인배제, 생산자와 소비자직결			57	1.6
5. 농협을 통한 협동판매 요청			10	0.3
6. 구판장 설치등 판매시설 개선			27	0.8
7. 생산비 가격인상 요망			143	4.0
8. 2중곡가제의 실시로 곡가안정도모			54	1.5
9. 수매 대금의 일시지불(강제저축배제)			211	6.0
10. 기 타			82	2.3
11. 무 응 답	3,535		3,080	87.1
계	3,535		3,535	

4. 食 生 活

事實上 食生活은 後述하는 健康狀態와 直結되는 問題이다. 即 食生活水準의 가장 낮은 狀態가 그 生命을 維持해 수 있는 정도의 영양섭취라고 말할 수 있으며 또한 이것은 健

康에 영향을 주는 몇가지 要因들(衛生, 運動, 負傷 등) 中에 가장 重要한 要因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한 까닭에 健康과 食生活問題는 別個의 것이라고 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잘 먹는다는 것은 역시 人生에서 너무나도 重要한 意義를 가지고 있다. 生命體를 維持하는 영양섭취의 段階를 벗어나면 그 다음에는 멋을 찾고, 美食을 追求한다. 여기서 이것을 별개의 것으로 한 理由는 生命體를 維持하는 영양의 段階를 벗어나면 그것은 이미 健康의 問題를 떠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여기서는 主로 肉類나 생선類를 먹는 回數를 基準하여 測定하기로 하였다. 원래 穀物과 植食을 爲主로 하는 韓國人에게 肉類나 生鮮은 가난한 사람들에게서는 特別한 occasion에만 먹는 것이 보통이었다.(추석이나 설날 또는 제사, 生日 等) 最近에 이와 같은 狀態가 많이 好轉되었으며 여기서는 그 程度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표 1〉 **肉類를 먹는 程度** (80點)

(1) 매일 먹는다	80點	(4) 一年에 몇 번	20點
(2) 일주일에 몇 번	60〃	(5) 最近에 먹어본 일 없음	0〃
(3) 한달에 몇 번	40〃		

〈표 2〉 **생선을 먹는 程度**

(1) 매일 먹는다	20點	(4) 일년에 몇 번	5點
(2) 일주일에 몇 번	15〃	(5) 最近에 먹어본 일 없음	0〃
(3) 한달에 몇 번	10〃		

(여기서 肉類와 생선류를 8對 2의 比率로 한 것을 大學院生들의 判斷에 依한 것임)

다음표는 위의 기준에 따른 식생활에 관한 지수이다.

〈표 3〉 **전 국**

조사대상자수	1970		1975		변화도
	총점	평균	총점	평균	
3,535	164306	46.5	191231	5.41	7.6

〈표 4〉 **道 別**

道名	조사대상자수	1970		1975		변화도
		총점	평균	총점	평균	
강원도	871	37103	42.6	44238	50.8	8.2
충청남도	870	40473	46.5	48195	55.4	8.9
전라북도	897	44895	50.1	49500	55.2	5.1
경상남도	897	41835	46.6	49298	54.9	8.3

〈표 5〉 郡 別

郡 名	조사 대상자수	1970 총점	1970 평균	1975 총점	1975 평균	변화도
강원도 ㅊ천군	294	11,585	39.4	13,828	47.0	7.6
ㅊ창군	289	12,488	43.2	15,138	52.4	9.2
ㅈ주군	288	13,030	45.2	15,237	53.0	7.8
충 남 ㅎ주군	290	12,370	42.7	14,350	49.5	6.8
ㅇ령군	296	14,723	49.7	17,795	60.1	10.4
ㅊ원군	284	13,380	47.1	16,050	56.5	9.4
전 북 ㅈ창군	300	14,615	48.9	15,580	52.1	3.2
ㅊ안군	279	13,843	46.6	14,995	50.5	3.9
ㅁ산군	300	16,438	54.8	18,925	63.1	8.3
경 남 ㅊ양군	300	12,915	43.0	15,315	51.0	8.0
ㅎ동군	300	15,758	52.5	17,643	58.8	6.3
ㅎ양군	297	13,163	44.2	16,340	54.8	10.6

이러한 事實과 관련하여 住民들에게 食生活에 대한 質問을 하였던 바 다음 表와 같은 답이 나왔다

〈표 ㅣ〉 가족의 영양섭취에 대한 만족도

	1970		1975	
1. 매 우 만 족	18	0.5	34	1.0
2. 만 족	277	7.8	503	14.2
3. 보 통	2,253	63.7	2,291	64.8
4. 불 만	880	24.9	638	18.0
5. 매 우 불 만	77	2.2	41	1.2
6. 무 응 답	30	0.8	28	0.8
계	3,535	100%	3,535	100%

5. 健 康

生活에서 健康이 重要한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東西를 막론하고 共通的인 事實이다. 健康에 對한 重要性을 認定하는 程度는 教育水準과 經濟的 水準 그리고 年齡에 따라서 相當히 差異가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가령 다른 條件이 같다면 教育水準이 높을수록 그것의 重要性을 認定하는 程度는 높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一定水準이상(例를 들면 高等學校 졸업정도나 學歷)의 경우에는 大體로 同一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經濟的 水準에 있어서도 基本的인 欲求를 充足할 수 있는 程度가 어느 정도 넘어서면 역시 앞의 教育水準과 같은 結果일 것으로 思慮되며 年齡의 경우는 大體로 그 重要性을 認定하는 程度가 年齡과 比例할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健康정도의 測定은 물론 개인의 健康診斷의 結果에 따

르는 것이 理想的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資料가 1970年度의 것은 물론 1975年의 것도 없다. 또한 이기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問題가 있다. 하나는 우리나라 農村의 各種病理統計가 이 硏究에 適用 하기에는 적합하지 못하다는 點이다. 이것은 各 病院에서의 報告가 정확하지 못할 뿐 아니라 마을 單位 또는 面單位로 compile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 問題는 우리나라 農村사람들은 어지간한 重態가 아니면 病院에 가지 않는다는 事實이다. 藥局에 가서 藥을 사다가 집에서 치료하는 경우가 大部分이며 또한 漢藥房에서 약을 지어다 먹는 경우도 많다. 漢藥을 利用 한다는 事實이 덜 開化되었는지의 여부를 말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公式統計에 反映되는 程度가 낮은 것만은 事實인 것 같다.

여기서는 韓國農村 사람들이 얼마나 健康한가를 測定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方法에 의하여, 얼마니 健康에 유의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測定하였다. 즉 健康에 留意하는 사람은 生活의 여유가 있다고 간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健康에 유의하는 정도를 알기 위해 다음과 같은 質問을 하였다.

〈表 1〉 병원에 가는 경우

(1) 정기적으로 간다	50點
(2) 일주일 이상 기침을 하는 경우에 병원에 간다	50〃
(3) 일주일 이상 배가 아픈 경우에 병원에 간다	25〃
(4) 일주일 이상 이가 아플 경우에 병원에 간다	25〃
(5) 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 병원에 간다	25〃
(6) 최근 병원에 가 본 일이 없는 경우	0〃

〈表 2〉 집에 비치하고 있는 약품

(1) 5가지	50點	(4) 2가지	20〃
(2) 4가지	40〃	(5) 1가지	10〃
(3) 3가지	30〃	(6) 없 다	0〃

물론 이러한 測定方法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 가령 가장 높은 score를 차지하는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는 경우가 健康狀態面에서는 最惡의 狀態일 수도 있으며 反對로 點數가 없는 「最近 病院에 가 본 일이 없다」는 경우가 實은 가장 健康한 狀態인지도 모르며 그러기 때문에 check up이 불필요 한지도 모른다. 또한 이와 같은 論法으로 健康에 얼마나 유의하느냐 하는 것을 測定하는 것은 그것을 留意할 必要조차 없을 程度로 健康한 사람들이 結果的으로 生活狀態面에서 낮은 score를 차지하게 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理由에서 健康에 關한 面은 그 妥當性에서 결함을 認定하지 않을 수 없다.(이러한 點은 二次年度 調査에서 適切히 補强하도록 努力하겠다.) 여기서는 다만 定期的으로 健康을 診斷할 수 있을 程度라면 相當히 높은 水準의 生活을 하고 있는 狀態이며 일주일씩이나 기침을 한다든가 배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病院에도 못 갈 정도라면, 또한 아무리 아파도 病院에 못 갈 程度라

면 生活기準이 낮은 것으로 判斷하고자 한 것이며 이러한 點에 있어서도 前述한 바와 같이 몇가지 問題點이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다음 표는 한국농촌사람들의 건강에 관한 지수를 나타낸다.

〈표 3〉 전 국

조사대상자수	1970		1975		변화도
	총점	평균	총점	평균	
3,535	197,336	55.82	200,251	56.6	0.78

〈표 4〉 道 別

道名	조사대상자수	1970		1975		변화도
		총점	평균	총점	평균	
강원도	871	45,208	51.9	47,103	54.1	2.2
충청남도	870	52,685	60.6	53,183	61.6	1.0
전라북도	897	48,938	54.6	50,020	55.8	1.2
경상남도	897	50,505	56.2	49.945	55.6	0.6

〈표 5〉 郡 別

郡名		조사대상자수	1970		1975		변화도
			총점	평균	총점	평균	
강원도	홍천군	294	15,873	50.0	15,983	54.4	4.4
	평창군	289	15,503	53.6	15,880	54.9	1.3
	명주군	288	13,833	48.0	15,240	52.9	4.9
충남	공주군	290	17,788	61.3	18,335	63.2	1.9
	보령군	296	16,095	54.4	17,480	59.1	4.7
	천원군	284	18,803	66.2	17,368	61.2	5.0
전북	고창군	300	15,695	52.5	16,045	53.7	1.2
	진안군	297	17,605	59.3	17,630	59.4	0.1
	익산군	300	15,638	52.1	16,345	54.5	2.4
경남	밀양군	300	17,415	58.0	17,430	58.1	0.1
	하동군	300	16,328	54.4	15,568	51.9	2.5
	함양군	297	16,763	56.3	16,948	56.9	0.6

〈표 6〉 가까운 병원까지의 거리

	1970		1975	
1. 2l m 이내	1,192	33.7	1,304	36.9
2. 4l m 〃	906	25.6	924	26.1
3. 6l m 〃	405	11.5	428	12.1
4. 8l m 〃	346	9.8	327	9.3

5. 10km 〃	92	2.6	89	2.5
6. 12km 〃	241	6.8	176	5.0
7. 14km 〃	77	2.2	71	2.0
8. 16km 〃	89	2.5	52	1.8
9. 그 이 다 멀 다	153	4.3	135	3.8
10. 무 응 답	34	1.0	19	0.5
계	3,535	100%	3,535	100%

〈표 7〉 본인과 가족의 건강에 대하여

	1 9 7 0		1 9 7 5	
1. 매우 관심을 쓴다	478	13.5	668	18.9
2. 관심을 쓴다	1,588	44.9	1,914	54.1
3. 그저 그렇다(범상하다)	1,117	31.6	770	21.8
4. 그다지 관심을 쓰지 않는다	241	6.8	130	3.7
5. 전혀 관심이 없다	48	1.4	30	0.8
6. 무 응 답	63	1.8	23	0.7
계	3,535	100%	3,535	100%

6. 職業滿足

人生에서 自己의 職業에 滿足하는 사람보다 더 幸福한 사람은 없을 것 같다. 自己의 趣味와 適性에 맞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마 이 세상에서 그리 흔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사람은 싫든 좋든 간에 一定한 年齡에 到達하면 그가 은퇴하거나 死亡할 때까지 일정한 職業에 從事하여 적어도 그의 人生의 3分之 1의 時間을 그의 職業을 爲하여 消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까닭에 生活에서 職業滿足은 빼놓을 수 없는 重要한 部分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職業滿足의 정도는 前述한 바와 같이 그의 income에 依하여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나 그것만이 職業滿足의 程度를 決定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一般的으로 職業滿足에 영향을 주는 變數들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即, (1) income, (2 prestige, (3) 作業환경 또는 條件, (4) 人間關係等이다. 여기서 prestige란 social prestige를 말하며 社會로부터의 認定感이나 존경 같은 것을 包含하며, 작업환경 또는 조건이란 일의 安易정도를 위시하여 소음이라든가 청결 또는 직장까지의 거리 등의 위생조건까지를 포함하며, 人間關係란 主로 職場內에서 그가 접촉하거나 관계가 있는 사람들과의 人和관계를 좋게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이 밖에도 職業自體의 安定性(stability) 같은 것도 職業滿足에 영향을 주는 變數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농어민의 職務滿足을 엿볼 수 있는 客觀的인 資料로서 離農 또는 轉業의 數는 그 社會의 다른 資料의 變化, 例를 들면 都市化와 工業化, 써비스業 등의 産業構造의 變化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單純히 다음과 같은 두가지 質問에 대한 反應에 依하여 測定하기로 하였다.

〈표 1〉 농사짓기가 편하다고 보는가?

(1) 매우편함	50 點	(4) 불 편 함	12.5點
(2) 편 함	37.5〃	(5) 매우 불편함	0 〃
(3) 그저 그렇다	25 〃		

〈표 2〉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흥미롭습니까?

(1) 매우 흥미롭다	50 點	(4) 흥미없음	12.5點
(2) 흥미롭다	37.5〃	(5) 전 혀 흥미가 없음	0 〃
(3) 보 통	25 〃		

다음 표는 직업만족에 관한 지수이다.

〈표 〉 전 국

조사대상자수	1970		1975		변화도
	총 점	평 균	총 점	평 균	
3,535	120,864	34.2	141,526	40.0	5.8

〈표 〉 道 別

道 名	조사 대상자수	1970		1975		변화도
		총 점	평 균	총 점	평 균	
강 원 도	871	29,013	33.3	33,425	38.4	6.1
충 청 남 도	870	30,113	34.6	36,800	42.3	7.7
전 라 북 도	897	30,288	33.8	55,263	39.4	5.6
경 상 남 도	897	31,450	35.0	36,038	40.1	5.1

〈표 〉 郡 別

郡 名		조사 대상자수	1970		1975		변화도
			총 점	평 균	총 점	평 균	
강원도	홍천군	294	10,300	35.0	12,000	40.8	5.8
	평창군	289	16,475	36.2	11,850	41.0	4.8
	평주군	288	8,238	28.6	9,575	33.2	4.6
충 남	공주군	290	9,188	31.7	12,063	41.6	9.8
	보령군	296	10,438	35.3	12,588	42.5	7.2
	천원군	284	10,488	36.9	12,150	42.8	5.9
전 북	고창군	300	9,538	31.9	10,163	34.0	2.1
	진안군	297	10,413	35.1	11,613	39.1	4.0
	익산군	300	10,338	34.5	13,488	45.0	10.5
경 남	김양군	300	9,813	32.7	10,913	36.4	3.7
	하동군	300	10,738	35.8	12,388	41.3	5.5
	함양군	297	10,900	36.9	12,738	42.7	5.8

〈표 6〉 농사짓기에 편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1970		1975	
1. 자신의 노력 때문	367	10.4	318	9.0
2. 기 계 화	74	2.1	745	21.1
3. 협 동 심	181	5.1	285	8.1
4. 기 술 향 상	52	1.5	302	18.5
5. 도로 및 수리시설	115	3.3	816	23.1
6. 자 금	9	0.3	28	0.8
7. 품 종 개 량	60	1.7	352	10.0
8. 기 타	173	4.9	81	2.3
9. 무 응 답	2,799	79.2	1,792	50.7
계				

직업에 대한 의견

〈표 7〉 직업을 바꿀 생각은 없다.

	1970		1975	
1. 절 대 찬 성	127	3.6	177	5.0
2. 찬 성	1,565	44.3	1,773	50.2
3. 중 립	1,139	32.2	876	24.8
4. 반 대	606	17.1	626	17.7
5. 절 대 반 대	44	1.2	52	1.5
6. 무 응 답	54	1.5	31	0.9
계				

〈표 8〉 나의 직업은 지역사회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1970		1975	
1. 절 대 찬 성	154	4.4	249	7.0
2. 찬 성	1,446	40.9	1,677	47.4
3. 중 립	1,614	45.7	1,354	38.3
4. 반 대	244	6.9	200	5.7
5. 절 대 반 대	8	0.2	12	3
6. 무 응 답	69	2.0	43	1.2
계				

7. 家族關係

住宅의 構造가 그 나라 國民들의 文化와 生活樣式에 依하여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며, 韓國의 경우도 例外는 아니다. 韓國에서의 住居라는 말(dwelling)은 實은 여기에서 말하는 家族關係라는 뜻이 多分히 포함되고 있다. 韓國 사람들이 日常生活에서 重要視하는 것의 하나가 家族들間의 화목이다. 夫婦間, 兄弟間, 부모자식間, 며느리와 시집食口間의 和睦을

말하는 것이며 特히 유교의 영향을 받은 韓國 사람들에 있어서 家族間의 和睦은 國家의 平和와 直結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修身, 齊家, 平天下란 곧 자기의 몸가짐을 잘 해야 집안을 平安하게 다스릴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世上이 平和롭다는 말이다. 물론 이러한 말은 家父長을 中心의 家族主義思想에서 비롯한 것이며, 비록 이와 같은 생각이 現代社會에 부적합한 點이 있다는 것을 認定하지 않는 바는 아니나 長點도 또한 많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韓國民의 이와 같은 家族關係는 確實히 西洋사람들이 말하는 家族關係와는 그 뜻이 약간 다르다. 韓國사람들의 家族關係는 各己 獨立된 家族構成員의 good relation이 아니라 보다 더 하나로 뭉친 關係이다. 그러한 까닭에 父母子息間에 또는 兄弟들 간에 돈을 빌리고 갚는다는 것은 이미 家族關係에서 離脫한 것으로 간주된다. 一般的으로 韓國에서는 가족간에 네것 내것이 없고 우리의 것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관념은 單純히 物質的인 것에 限定된 것이 아니다. 大體的으로 個人의 명예 또는 출세는 그 집안의 名譽 또는 家勢의 伸長이라는 意味를 갖는 경우가 많다. 即 韓國 사람들에게 特히 韓國의 農村에서는 個人은 家族의 一部 또는 構成分子라는 意味가 보다 더 强하며 西洋사람들에 比하여 그 獨立性이 弱하다. 그러한 까닭에 韓國人의 生活에서 家族員들 간의 화목은 極히 重要視되는 것이다.

特定한 社會의 家族들의 화목의 程度를 이혼율이라든가 家出少年·少女 또는 家出老人의 數 또는 別居件數 같은 것에 依하여 測定할 수 있다. 그러나 韓國의 農村에 있어서의 이혼의 율은 極히 낮다. 이것은 marrital adjustment가 夫中心으로 잘되어 있다는 뜻도 있겠으나 都市나 西洋사람들의 離婚의 條件이 韓國 農村 夫婦들 간에는 離婚條件으로 充分하지 못한 경우가 許多하다는 理由도 많다. 本 調査에서의 分析의 單位(unit of analysis)가 家口인 故로 여기서는 單純히 화목程度를 直接 물어보는 質問(five point scale)으로 測定하기로 하였다.

〈표 1〉 家族의 화목정도

(1) 매우화목	100點	(4) 불 화	25點
(2) 화 목	75〃	(5) 매우불화	0〃
(3) 보 통	50〃		

따라서 매우不和인 경우에는 生活狀態에서 得點하지 못하는 것이다.

〈표 2〉 전 국

조사대상자수	1970		1975		변화도
	총 점	평 균	총 점	평 균	
3,535	232,900	65.88	245,400	69.42	3.54

〈표 3〉 道 別

道 名	조사 대상자수	1970 총점	1970 평균	1975 총점	1975 평균	변화도
강원도	871	58,050	66.6	62,200	71.4	4.8
충청남도	870	53,450	61.4	64,425	66.0	4.6
전라북도	897	62,175	66.4	64,425	71.9	2.5
경상남도	867	59,225	66.0	61,325	68.3	2.3

〈표 4〉 郡 別

郡 名	조사 대상자수	1970 총점	1970 평균	1975 총점	1975 평균	변화도
강원도 홍[illegible]군	294	19,275	65.6	20,700	70.4	4.8
평[illegible]군	289	19,325	66.9	20,075	69.5	2.6
명[illegible]군	288	19,450	67.5	21,425	74.4	5.9
충남 공[illegible]군	290	18,550	64.0	19,850	68.4	4.4
보[illegible]군	296	17,625	59.5	18,825	63.6	4.1
천[illegible]군	284	17,275	60.8	18,775	66.1	5.3
전북 고[illegible]군	300	20,075	67.1	21,075	70.5	3.4
진[illegible]군	297	21,300	71.7	21,475	72.3	0.6
익[illegible]군	300	20,800	69.3	21,875	72.9	3.6
경남 밀[illegible]군	300	19,725	65.8	20,625	68.8	3.0
하[illegible]군	300	20,725	69.1	21,225	70.8	1.7
합[illegible]군	297	18,775	63.0	19,475	65.4	2.4

8. 對人關係

가령 만나면 즐겁고 걱정되는 일이 생기면 같이 걱정하고 의논하는 그리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해 주는 이웃이나 親舊가 없는 사람이 좋은 生活을 누린다고 하기가 어렵다. 都市生活의 경우는 이것이 큰 比重을 차지 하지 않을지도 모르나 韓國의 農村에는 이것이 大端히 큰 比重을 차지한다. 韓國의 農村의 特徵을 나타내는 말 中에 「누구의 집에 숫가락이 몇 개 있는 것까지 다 안다」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서로가 서로를 아주 잘 알고 있다는 事實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韓國의 農村의 郵便配達夫는 番地數가 없이도 便紙의 配達이 可能한 것이다. 故로 韓國의 農村社會에서 이웃은 그들의 生活에 相當히 重要한 뜻을 가진다. 그들은 관혼상제 때는 勿論, 生日이라든가, 환갑이라든가 기타 좋은일, 궂은 일에 모여서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한다. 이들은 또한 農事일에도 서로 協力한다. 가령 어떤 집의 모내기 라든가 秋收 때는 그마을 사람들이 全部動員 되는 것이 普通이다.

그러나 本調査에서는 이와 같은 協力關係를 이웃 마을과의 關係에서만 測定하였다. 農村

이 漸次로 發展하여 감에 따라서 이웃 마을과의 關係가 점점 깊어져 가고 있다. 그 마을에서의 自給自足의 水準을 넘어서서 그들의 生活圈은 이웃 마을까지 擴大되고 있다. 가령 다리를 놓는다든가 道路를 補修한다든가 넓힐때 또는 勞動力을 支援할때, 병충해 방지 等의 일을 할때에도 이제는 이웃 마을과 協助하지 않으면 안 될일이 增加되어 가고 있으며 따라서 이웃 마을 사람들과의 關係가 그들의 生活의 重要한 位置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여기서는 單純히 이웃 마을과의 關係를 묻는 質問에 依하여 그 關係를 測定하려고 試圖하였다. 여기서 그들 部落內에 있어서 이웃 關係를 한 것은 다음과 같은 理由에서이라 하나는 前述한 바와 같이 部落內에 있어서의 對人關係에 있어서는 大體로 例外없이 最高스코어로 나타낼것이고 둘째는 한국의 農村의 法定里는 大體로 몇개의 마을(自然部落)로 이루어지고 있다. 韓國政府가 몇 개의 마을로 이루어지는 自然部落群을 最低 行政區域(法定里)으로 한 理由도 여기에 있는것 같다. 따라서 그러한 自然部落群內에 있는 다른 마을 사람들과의 親近程度는 그들의 生活에서 無視할 수 없는 要素인 것이다. 더욱이 他人으로부터 좋은 사람, 좋은 집안으로 認定 받는다는 것도 生活에서 重要한 事實이며 이러한 認定感 또는 信望을 받는 범위는 적어도 自己의 마을에서 뿐만 아니라 이웃마을(같은 法定里)까지는 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對人關係에 對한 score는 아래와 같은 質問에 依하여 算出하였다.

〈表 1〉 이웃 마을 住民과의 關係

1) 매우화목	100點	4) 불 화	25點
2) 화 목	75點	5) 매우불화	0點
3) 보 통	50點		

대인 관계에 관한 지수

〈표 ?〉 전 국

조사대상자수	1970		1975		변화도
	총 점	평 균	총 점	평 균	
3,535	217,025	61.4	235,150	66.5	5.1

〈표 ?〉 道 別

道 名	조사 대상자수	1970		1975		변화도
		총 점	평 균	총 점	평 균	
강 원 도	871	55,025	63.2	60,200	69.1	5.9
충 청 남 도	870	49,875	57.3	55,425	63.7	6.4
전 라 북 도	897	57,975	64.7	61,900	69.1	4.4
경 상 남 도	897	54,150	60.3	57,625	64.2	3.9

〈표 1〉 郡 別

郡	名	조사 대상자수	1970 총점	1970 평균	1975 총점	1975 평균	변화도
강원도	홍천군	294	18,100	61.6	20,250	68.9	7.3
	횡창군	289	17,725	61.3	19,300	66.8	5.5
	횡주군	288	19,202	66.7	20,650	71.7	5.0
충 남	공주군	290	17,225	59.4	19,100	65.9	6.5
	보령군	296	17,100	57.8	19,175	64.8	7.0
	논원군	284	15,550	54.8	17,150	60.4	5.6
전 북	고창군	300	19,075	63.8	19,900	66.6	2.8
	김안군	297	21,350	71.9	22,025	74.2	2.3
	익산군	300	17,550	58.5	19,975	66.6	4.1
경 남	밀양군	300	18,125	60.4	19,250	64.2	3.8
	하동군	300	18,925	63.1	19,500	65.0	1.9
	함양군	297	17,100	57.4	18,875	63.3	5.9

〈표 ! 〉 마을 총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1975	
1 늘 따른다	1,436	40.6
2 대체로 따른다	1,570	44.4
3 보통 따를때도 있고 안따를때도 있다	471	13.3
4 대체로 따르지 않는다	25	0.7
5 늘 따르지 않는다	10	0.3
6. 무 응 답	23	0.6
계	3,535	

〈표 (〉 이 마을의 부녀 활동은

	1970		1975	
1. 대단히 활발하다	43	1.2	321	9.1
2. 활 발 하 다	440	12.4	1,538	43.5
3. 보 통	1,435	40.6	1,316	37.2
4. 활발하지 못하다	1,101	31.1	281	7.9
5. 대단히 못하다	429	12.1	46	1.3
6. 무 응 답	87	2.4	33	0.9
계	3,535		3,535	

〈표 7〉 걱정거리의 의논 상대

	1970		1975	
1. 가족이나 집안어른	2,493	70.5	2,212	62.6
2. 친 척	380	10.7	271	7.7
3. 친 구	130	3.7	110	3.1
4. 마을에서 존경 받는 어른	238	6.7	285	8.1
5. 이장, 면장 새마을 지도자	191	5.4	577	16.3
6. 기 타	39	1.1	38	1.1
7. 무 응 답	64	1.8	42	1.2
계	3.535		3,535	

〈표 8〉 주민과의 싸움

	1970		1975	
1. 매우자주	31	0.9	11	0.3
2. 가끔주	206	5.8	60	1.7
3. 사람사는 곳이면 어디에나 있을 정도로	1,661	47.0	1,246	35.2
4. 거의없다	1,280	36.2	1,719	48.6
5. 전혀없다	314	8.9	483	13.7
6. 무응답	43	21.2	16	0.5
계	3,535		3,535	

9. 安 全

여기서 安全이란 國民들이 身體, 그리고 生活을 爲한 여러가지 活動의 侵害 또는 侵害의 危脅으로부터 保護 받는 狀態를 말한다. 따라서 넓게는 各種 職業病을 爲始한 前述한 疾病으로부터의 保護는 물론 넓은 意味에 있어서의 消費者保護의 여러 內容도 包含된다. 또한 各種 公害라든가 交通事故로부터의 安全도 포함된다. 그러나 安全의 核心은 暴力이라든가 절도 等이 없는 狀態를 말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위협이 存在하는 한 國民들의 生活은 滿足할만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물론 各種 暴力이라든가 절도를 中心으로 한 安全의 維持는 政府의 警察機能에 一次的으로 달려 있으며 그 밖에 經濟秩序, 그리고 各種 檢査를 爲主로 하는 統制機能도 重要한 役割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主로 前述한 各種 暴力으로부터의 保護를 測定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러한 暴力이나 절도 等의 犯罪에 關한 警察統計에 依하여 安全程度를 測定하는 것이 理想的이기는 하나, 外國의 경우에 있어서도 大體로 같은 事情이라고 생각되지만 이러한 政府의 犯罪統計는 事實上 믿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特히 간단한 절도나 폭력 같은 것은 警察統計에 反映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이것을 特定한 地域과 關聯시켜서 分析하기란 어려운 作業이다. 그리하여 本調査에서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門圍束에 어느

程度留意하는지 그리고 夜間通行에 얼마나 危脅을 느끼는지를 말하는 質問에 依하여 測定하기로 하였다(註 1).

이들을 측정한 표는 다음과 같다.

〈표 1〉 문 단속

(1) 매우 신경을 쓴다	0點	(4) 신경을 쓰지 않는다	37.5〃
(2) 신경을 쓴다	12.5〃	(5)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50 〃
(3) 보 통	25 〃		

〈표 2〉 이 마을에서는 밤에 나다니기가

(1) 매우 두렵다	0點	(4) 안전하다	37.5〃
(2) 두렵다	12.5〃	(5) 매우 안전하다	50 〃
(3) 보 통	25 〃		

여기에서 나온 Score를 살펴보면 아래 表와 같다.

〈표 3〉 전 국

조사대상자수	1970		1975		변화도
	총 점	평 균	총 점	평 균	
3,535	173,763	49.2	187,726	53.0	3.8

〈표 4〉 道 別

道 名	조사대상자수	1970		1975		변화도
		총 점	평 균	총 점	평 균	
강 원 도	871	45,825	52.6	47,300	54.3	1.7
충청남도	870	40,850	47.0	44,250	50.9	3.9
전라북도	897	40,263	44.9	45,038	5.3	5.4
경상남도	897	46,825	52.1	51,138	56.9	4.8

(註1) 韓國에서는 忠淸北道를 除外하고는 全國에 밤 12時부터 새벽 4時까지 夜間通行을 禁止하고 있다. 이것을 以北으로부터의 軍事的危脅 때문에 오래 前부터 實施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韓國의 農村에는 이 點에 關하여는 政府나 農民들이 거의 神經을 쓰지 않고 있다. 一部海岸地方을 제외하고는 事實上 夜間通行 禁止令은 없는 것과 같으며, 아마 韓國의 農村처럼 安全한 곳은 없다고 생각된다.

〈표 5〉 郡 別

郡	名	조사 대상자수	1970 총점	1970 평균	1075 총점	1075 평균	변화도
강원도	홍천군	294	16,125	54.8	15,700	53.4	1.4
	평창군	289	13,713	47.4	14,575	50.4	3.0
	명주군	288	15,988	55.5	17,025	59.1	3.6
충 남	공주군	290	13,538	46.7	14,513	50.1	3.3
	보령군	296	14,888	50.3	16,400	55.4	5.1
	천원군	284	12,425	43.8	13,338	47.0	3.2
전 북	고창군	300	13,375	44.7	15,550	52.0	7.3
	진안군	297	14,750	49.7	15,013	50.3	0.6
	익산군	300	12,138	40.5	14,475	48.3	7.8
경 남	밀양군	300	16,000	53.3	16,463	54.9	1.6
	하동군	300	14,938	49.8	16,913	56.4	6.6
	함양군	297	15,888	53.3	17,763	59.6	6.3

10 (4) 가

自己職業에 만족하는 程度가 높은 사람은 여가 時間이 그렇게 必要하지 않거나 願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程度로 自己職務에 만족하는 사람은 極소수에 불과 할 것이고 아마 大部分의 사람들은 自己의 하루의 日課가 끝나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로할 것이며 따라서 누구든지 휴식을 취하는 시간을 원하고 또한 필요로 한다. 또한 자기의 직무와 취미가 完全히 일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미생활이나 오락, 여행 등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여가時間이 必要하다. 이러한 여가 시간을 얼마나 원하고 그것을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職業, 收入,, 教育, 나이 等에 따라서 相異하다. 韓國의 農民들은, 아마 다른 나라의 경우도 大體로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지만 이러한 여가시간이 계절에 따라서 심히 差異가 있다. 소위 農閑期 또는 魚閑期라는 것이 있고 농번기라는 것이 있다. 우리나라의 農閑期는 가을의 추수가 끝나는 10月末경에 시작하여 이른 봄까지 계속되는 比較的 긴 기간이다. 이것은 다른 局面의 事實이나, 이러한 農閑期가 끝나면 춘궁기라든가 보리고개라 하는 계절을 거친다. 이 때는 추수하여 저장하였던 곡식이 떨어지고 보리를 거두어 들이는 여름까지 궁핍한 生活을 하였었다. 이러한 狀態는 大體로 10여년 前까지 거의 매년 우리나라 농민들이 겪은 과정이었다. 그리하여 농촌의 많은 국민학교의 缺食兒童(점심을 굶는 아동)에 關한 문제가 신문지상에 거의 계절적으로 報導되었었다. 이러한 現象은 1960年代 後半부터 대체로 改善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새마을事業이 着手된 1970年度부터는 이러한 농한기를 利用하는 副業이 정부로부터 크게 권장되었고 이것이 농가수입에 크게 영향을 미쳐 거의 사라져가는 現象이 나타났다. 그러나 그와 反對로 농촌에서는 "농한기"라는 긴 방학이 사라지게 되었다.

한국 농촌의 이러한 상황하에서 긴 여가란 어떤 意味에서는 잠재실업을 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체로 하루에 여섯시간 정도의 여가가 있는 상태를 가장 바람직한 상태로 보고 이러한 時間에 무언가 취미생활이나 유익한 生活을 하는 것과 그저 잡담이나 막걸리 타령으로 時間을 보내는 사람을 區別하여 다음과 같이 측정하기로 하였다.

〈表 1〉 하루에 여가 시간은?

1) 1시간	0點	4) 4시간	30點
2) 2시간	10〃	5) 5시간	40〃
3) 3시간	20〃	6) 5시간 이상	50〃

〈表 2〉 여가 보내는 방법

1) 낚 시	50點	4) 라디오·TV·신문	50點
2) 바둑·장기등 잡기	50〃	5) 잡 담	0〃
3) 독 서	50〃	6) 음 주	0〃

〈표 3〉 전 국

조사대상자수	1970		1975		변화도
	총점	평균	총점	평균	
3,535	138,330	39.0	173,690	9.1	10.1

〈표 4〉 道 別

道名	조사대상자수	1970		1975		변화도
		총점	평균	총점	평균	
강원도	871	28,090	32.3	40,690	46.7	14.4
충청남도	870	32,180	37.0	40,720	46.8	9.8
전라북도	897	41,620	46.5	47,640	53.2	6.7
경상남도	897	36,440	40.6	44,640	49.7	9.1

〈표 5〉 郡 別

郡名	조사대상자수	1970		1975		변화도
		총점	평균	총점	평균	
강원도 홍천군	294	8,920	30.3	13,230	45.0	14.7
평창군	289	10,300	35.6	14,290	49.4	13.8
명주군	288	8,870	30.8	13,170	45.7	14.9
충남 공주군	290	11,010	38.0	14,150	45.3	7.3
보령군	296	11,290	38.1	14,460	48.9	10.8
천원군	284	9,880	34.8	13,110	46.2	11.4

전	북	고창군	300	14,810	49.5	17,190	57.5	8.0
		진안군	297	12,400	41.8	14,580	49.1	7.3
		익산군	300	14,410	48.0	15,870	52.9	4.9
경	남	밀양군	300	10,540	38.0	13,280	44.3	6.3
		하동군	300	10,670	35.6	13,490	45.0	9.4
		함양군	297	15,230	51.1	17,870	60.0	8.9

다음표들은 여가생활과 관련된 항목에 관한 응답자의 대답이다.

〈표 6〉 신문구독

	1970		1975	
1. 매일 정기적으로 읽는다	524	14.8	738	20.9
2. 가끔 읽는다	607	17.2	764	21.6
3. 거의 읽지 않는다	506	14.3	439	12.4
4. 전혀 읽지 않는다	996	28.2	816	23.1
5. 해당없음(생활권내 신문이 도달않는 경우)	837	23.7	747	21.1
6. 무 응 답	65	1.8	31	0.9
계	3,535			

〈표 7〉 라디오 청취도

	1970		1975	
1. 매일 듣는다	1,974	55.8	2,351	66.5
2. 가 끔	968	27.4	888	25.1
3. 거의 듣지 않는다.	157	4.4	79	2.2
4. 전혀 듣지 않는다.	128	3.6	72	2.0
5. 해당없음(생활권내 라디오가 없는 경우)	221	6.3	129	3.6
6. 무 응 답	87	2.5	16	0.5
계	3,535		3,535	

〈표 8〉 텔레비젼 시청도

	1970		1975	
1. 매일 본다	82	2.3	592	16.7
2. 가 끔	136	3.8	803	22.7
3. 거의 보지 않는다	112	3.2	192	5.4
4. 전혀 보지 않는다	278	7.9	345	9.8
5. 해당없음(생활권내 TV가 없다)	2,428	68.7	1,366	38.6
6. 무 응 답	499	14.1	237	6.7

〈표 8〉 농업등 기타 기술에 관한 책의 독서정도

	1970		1975	
1. 자주 읽는다(년 12권 이상)	237	6.7	396	11.2
2. 가끔 읽는다(년 6권 이상)	730	20.7	1,016	28.7
3. 거의 읽지 않는다(년 5권 이하)	1,080	30.6	1,028	29.1
4. 전혀 읽지 않는다(0)	1,387	39.2	1,053	29.8
5. 무 응 답	101	2.9	42	1.2
계	3,535		3,535	

Ⅲ. 總 評

以上 10個 生活分野에서 韓國 農村의 生活狀態를 檢討하여 보았다. 이것을 綜合하면 우리나라 農村生活指數의 平均値는 다음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70年度의 42.9點에서 75年의 49.3點으로 上昇한 셈이 된다. 이것을 各 生活水準別로 70年度와 75年度를 比較하면 다음 表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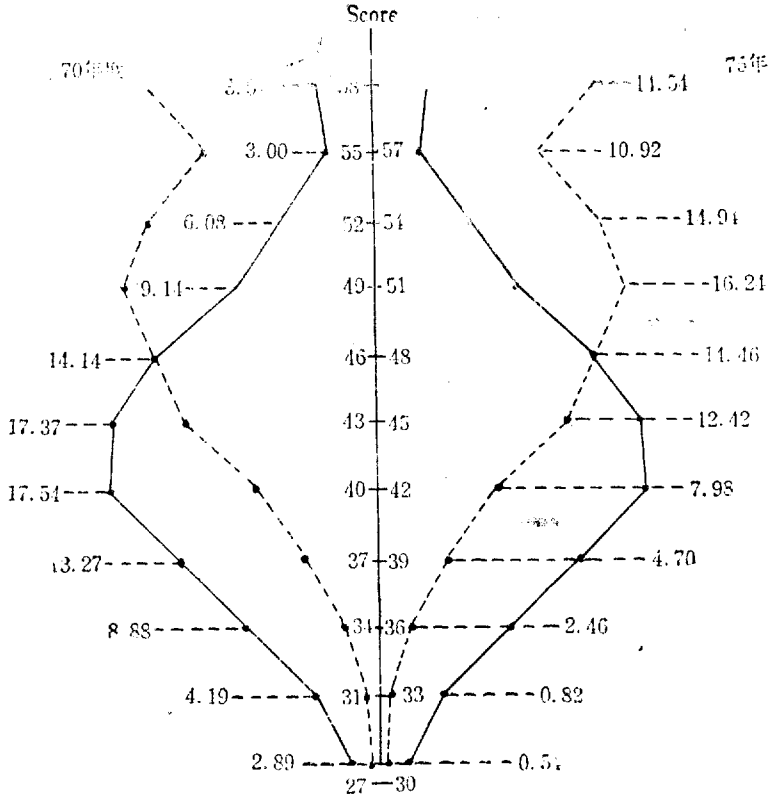
〈표 1〉 韓國農村生活指數比較表 (70~75)

생활수준	점 수	1970 조사대상자수	1970 백분율	1970 누적백분율	1975 조사대상자수	1975 백분율	1975 누적백분율
	27~30	102	2.89	2.89	19	0.54	0.54
	31~33	148	4.19	7.08	29	0.82	1.36
	34~36	314	8.88	15.96	87	2.46	3.82
	37~39	469	13.27	29.23	166	4.70	8.52
	40~42	620	17.54	46.77	282	7.98	16.5
	43~45	614	17.37	64.14	439	12.42	28.92
	46~48	500	14.14	78.28	511	14.46	43.38
	49~51	323	9.14	87.42	574	16.24	59.62
	52~54	215	6.08	93.5	528	14.94	74.56
	55~57	106	3.00	96.5	386	10.92	85.48
	58이상	124	3.51	100.01	514	14.54	100.02
	계	3,535	100		3,535		

Mo { 70. 40~42 / 75. 49~51 } Me { 70. 40~42 / 75. 49~52 } X̄ { 70. 42.9 / 75. 49.3 }

여기서 49~51點에 해당하는 階級을 調査者가 設定한 普通程度의 生活이라고 보면 韓國의 農村은 70年度의 普通以下의 生活에서 75年度에는 普通生活程度로 向上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 그림은 이러한 生活水準을 위의 表에 依하여 그린 것이다.



한 편 韓國政府는 우리 나라의 마을을 그 發展 또는 發展可能性의 程度에 따라서 세가지로 分類하고 있다. 基礎마을, 自助마을, 自立마을이 그것이며 그 具體的인 基準은 다음과 같다(註 2).

〈표 2〉 새마을 分類基準

事業別	自助마을	自立마을
마을안 街路網	幹線 안길 整備	支線 안길까지 整備
農村道路	마을 進入路 完成	幹線農路의 完成
小橋梁	10m 未滿橋梁完成	20m未滿橋梁完成
小河川	마을안 細川整備	마을 周小河川整備
農業用水	水利率 80% 以上	水利率 85%以上
共同利用施設	會館·倉庫 등 1件	會館·倉庫 등 2件 이상
지붕改良	全家口의 50%以上	全家口의 80% 以上
마을基金	마을 當 30萬원 以上	마을 當 50萬원 以上
새마을貯蓄	農家當 1萬원 以上	農家 當 2萬원 以上
所得水準	戶當 70萬원 以上	戶當 90萬원 以上

(註2) 이것은 優秀마을을 優先的으로 支援하여 基礎마을을 自助마을로, 自助마을을 自立마을로 昇格시키기 爲한 分類로서 基本的으로는 上位마을을 보고 努力하도록 하기 爲한 자극을 주자는 것이다.

上述한 政府의 分類基準에 依하여 政府가 年度別로 해놓은 새마을 分類는 다음과 같다(註 3).

〈표 3〉 年度別 새마을 分類

年次別 \ 水準別	計	基礎	自助	自立
1 9 7 2	34,665	18,415(53%)	13,943(40%)	2,307 (7%)
1 9 7 3	34,665	10,656(30%)	19,763(57%)	4,246(13%)
1 9 7 4	34,665	6,165(18%)	21,500(62%)	7,000(20%)
1 9 7 5	35,031	4,046(11%)	20,936(60%)	10,049(29%)

* 1975. 10. 1 현재

그러나 여기서 問題가 되는 것은 그러한 基準에 依한 政府의 分類와 이 調査에서 나타난 生活指數와의 사이에는 相當한 巨離가 있다는 事實이다.

即 새마을 事業이 잘 된 程度와 生活指數가 다음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높은 相關關係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事實이다.

〈표 4〉 마을種類別 平均 生活指數

마을구분 \ 년도	1 9 7 0	1 9 7 5
기 초 마 을	44.03	48.10
자 조 마 을	41.50	47.65
자 립 마 을	44.08	49.02

即 70年度와 75年도가 똑같이 自立마을의 生活指數가 가장 높다는 것은 대체로 一致되나 自助마을의 경우는 70年度 75年度 共히 오히려 基礎마을 보다 生活指數가 낮다는 事實이다. 이 點에 關하여서는 2次年度에 보다 더 綿密하게 分析해 볼 豫定이다. 다만 여기서 暫定的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첫째, 政府가 設定한 基準은 主로 生活環境改善事業들인데 이러한 事業들이 반드시 生活의 向上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둘째, 萬一 그러한 環境改善事業이 生活向上에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間接的인 것으로서, 그 영향을 적어도 보다 더 오랜 時間을 要할지도 모른다.

셋째, 政府의 基準은 마을의 發展程度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發展의 內容이 지나치게 物理的인 環境的 事實에만 置重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註3) 이것은 새마을의 昇格추세라고 말할 수 있다.